

나주시, 농가 환경 개선·축사 악취 해법 찾는다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주민과 상생 인식전환 필요
악취 저감 농가 우선 지원 검토
“상호 상생 공존 도모 위해 노력”

나주시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운병태 시장 주재로 축산과, 환경관리과 등 축산·악취 소관 부서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민원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운병태 시장은 강력한 지도단속과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을 병행한 실질적인 축사 환경 개선과 더불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농가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시는 올해 축산 농가 환경 개선과 악취

개선을 위해 악취저감(플라즈마)시설 및 저감제,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2023년 7월 도내 최초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면서 이전보다 체계적인 민원 관리, 악취 단속에 나서며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센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악취발생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통합 관제(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센터 개소 이전에는 일과 시간 이후 악취 관련 민원은 당직실 직원들이 익일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센터 개소 이후엔 연중무휴 환경 분야 전문 인력들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악취 발생 전후 신속한 현장 대응뿐 아니라

전담 창구로서 악취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악취 시료를 채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 조치 등 단계별 처분을 통해 사업주의 시설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센터 개소 이전인 2021년엔 834건 2022년에는 360건으로 집계됐다. 현장 점검 건수 또한 279건, 2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개소 이후엔 민원 횟수가 크게 늘었다. 횟수가 늘었다는 것은 센터가 24시간 악취 전담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반증이다.

개소 이후 지금까지 접수한 악취 민원

건수는 1053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접수와 센터 시스템에 따른 현장 점검 수는 1165건에 달한다.

이 중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28차례 개선명령을 했으며 4건을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소규모 마을 단위 돈사, 특정 분뇨배출시설 등에서 반복성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악취측정기를 활용한 실시간 악취 발생 상황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기준 초과 등 관련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을 더해 사업주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운병태 시장은 건축허가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등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해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설 내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 등에 대

한 상시 단속을 주문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하는 축산과 지원사업을 병행해 지역민과 상생, 공존하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운 시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공존,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축산 농가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웃의 고충을 공감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기준을 충족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통합관제센터운영은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악취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상호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농가와 지역민의 상생을 재차 강조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시민 생활 밀접’ 내년 신규시책 발굴

음식물류 폐기물 매일 수거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포함

나주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효용성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운병태 시장 주재로 2025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시책 보고회는 시책 전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시책 구조조정과 체감도 높은 시책 강화를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90건의 신규시책 중 주요 시책을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공유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나주시 우수 조달물품 지정등록 컨설팅 지원’, ‘원도심 상가

제휴 할인 이벤트 지원’, ‘읍면동 소규모 축제 발굴’, ‘상가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매일 수거제’ 등 지역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이 주목받았다.

또한 ‘소박하지만 알찬 공공 작은 곁흔식’, ‘자연마을 및 주요 시설물 알림노면표시 설치’,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권 카드형 전환 지급’, ‘일회용 데이크아웃 컵 회수 활성화’ 등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도 다양하게 포함됐다.

운병태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가치 있게 활용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책이 필요하다”며 “발굴된 시책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일단 멈춰,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나주시는 지난 6일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나주 중앙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에서 진행되었으며, 나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일단 멈춰,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은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배려 운전을 유도했

다.

어린이들에게는 신호 대기 시 한발 뒤로 물러서기,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 좌우 살피기, 천천히 건너기,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않기 등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담긴 전단지들을 나눠주며 교통안전전을 홍보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 운전 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나주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주)다산조경, 왕곡면에 ‘사랑의 백미’ 기탁

나주시 왕곡면은 조경업체인 (주)다산조경(대표 전운선)이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10kg) 10포를 기탁했다.

(주)다산조경 전운선 대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주)다산조경은 수년 전부터 어려운 이웃

을 위한 백미 기탁을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상희 왕곡면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다산조경 전운선 대표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해 준 백미는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남도사랑봉사단이 최근 외로이 생신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주시 제공

남도사랑봉사단,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나주시 남평읍(읍장 이재덕)은 남도사랑봉사단(단장 강연숙)이 최근 남평읍 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 속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도사랑봉사단은 2015년 창단 이후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남평읍에서

는 김순례, 류정자, 강진희 단원이 소속돼 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르신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와 선물을 전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부노인복지관의 하모니카와 오카리나 연주, 부녀회의 손가락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

다.

한 어르신은 “가족에게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생일상을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전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강연숙 단장은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재덕 읍장도 “이웃 사랑을 실천한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역 대합실에 ‘고향뜨락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나주역 대합실에서 ‘고향뜨락 나주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나주역 대합실에서 ‘고향뜨락 나주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

‘고향뜨락’은 ‘내 고향, 내 고향의 특산

물을 뜨락(뜰)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의미를 담아 코레일 유통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다.

이번 나주역 판매장에서는 나주의 대표

특산물인 배즙, 참기름, 꿀, 식혜 등 80여종의 농특산물이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나주역은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요충지로, 이번 판매를 통해 나주시 농가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향객 및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정이 담긴 나주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나주를 찾는 많은 귀향객과 관광객들이 고향의 맛을 느끼고 지역 농가의 우수한 특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매장이 나주시의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